

광주서 내년 세계한상대회

3차례 도전 끝 유치 성공…40개국 3500명 참여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확정됐다. 광주는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호남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에 열릴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광주 시를 확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유치를 신청한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전시·회의시설과 숙박·교통 등 유치 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뒤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전체 23명의 운

영위원 가운데 광주가 20표를 획득해 제주(2표)와 부산(1표)을 제치고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개최지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13년 10월 중 전세계 40개국 35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광주발전연구원은 대회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100억 원대에 달하고, 과거 대회를 기준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45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외동포 기업인들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은 물론, 700만 해외 동포들에게 광주의 국제적인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한상대회 유치에 나섰지만, 번번이 특급호텔 객실 숫자 부족으로 고배를 먹셨었다. 이번에도 특급호텔 750室 이상 확보라는 대회 개최 조건의 ‘벽’에 부딪혀 재외동포재단과 운영위원회를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700만 해외 동포와 국내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경제인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의 열창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학생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회 호남예술제 성악 독창부문 경연에 참가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입상자 명단 12명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지해 작가 첼시플라워쇼 출품 꿈 이뤘다

호반·남광건설 작품제작비 5억 기부

지역 기업들의 메세나(Mecenat) 활동이 문화계에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로 180년 전통의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 공식 초청장을 받고 작품 제작비를 마련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35·광주환경미술가그룹 뮤 대표) 작가를 위해 지역 기업들이 과격적으로 5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회장 김상열)과 남광건설(회장 김대기)은 2일 “지난 4월 25일자 광주일보 1면에 보도된 ‘황지해 작가 DMZ 정원, 출품 듭Kyle’ 기사를 보고 작품 제작비 부족의 5억원을 전액 광주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광건설은 2억원, 호반건설은 3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들의 지원에는 강원대 광주시장이 직접 작가 후원 기업 찾기에 나선 것도 한몫을 했다.

황 작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첼시 플라워 쇼의 '쇼 가든' 부문 전시작품으로 '고요한 시간-DMZ 금지된 화원'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8억원에 이르는 정원 조성 비용 중 5억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출품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었다.

이번 지역 기업의 지원과 함께 영국 현지에서도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 참전용사협회를 중심으로 황 작가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 전회장 로더미어(Rothermere) 자작 부인과 영국재향군



황지해 작가 DMZ 정원, 출품 드립니다'가 2일 영국 런던 첼시 플라워쇼 'DMZ 정원' 조성 현장에서 작품 설치에 참여한 현지인들과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지역 기업들의 후원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인회 등도 드렸다며 나서고 있다.

황 작가는 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의 온 험을 너무 많이 받아 행복하고 전라도의 힘을 새삼 느꼈다”면서 “고마운 마음 간직하면서 전 세계에 광주와 한국의 예술을 알리는데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기간에 맞춰 중외공원 일대에 황 작가의 'DMZ 정원'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감사원 '의문의 상품권' 알고도 덮었다

2007년 광주시 8억여원 구매 적발하고 조치 없이 감사 중단

광주지검 수사 착수

감사원이 지난 2007년 수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구매에 쓴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를 종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광주시가 그 이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감사 중단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감사원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7년 6월4일부터 15일까지 직원 10명을 광주시에 보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4년부터 3년간 업무추진비 8억 8000만원으로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광주시는 이 상품권을 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며 이후 감사원은 실제로 상품권이 전달됐는지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광주시가 매년 수의원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내용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귀정보고'와 감사 대상기관에 발송하는 '질문서'에서도 제외됐다.

광주시가 이 같은 감사 적발 사실을 무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령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시가 전전긍긍했으며, 당시 고위간부가 감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혼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전직 고위간부는 “그런 사실은 없고, 상품권 구매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7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5년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시'가 사라지면서 광주시는 2003~2007년 업무추진비와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로 박탈

태전 시장이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숨겨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했다.

또 당시 총무과 직원에 불과했던 이모(47)씨가 각·설·국·과 등이 실시하는 사업·행사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관리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2004~2010년 까지 지역 내 또 다른 백화점에서 매년 선물·격려 등에 쓰기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상품권의 용도에 대한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

한편 거액 상품권 구입에 대해 박광태 전 시장의 측근은 “박 전 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며, 당시 고위간부가 감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혼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전직 고위간부는 “그런 사실은 없고, 상품권 구매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7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5년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시'가 사라지면서 광주시는 2003~2007년 업무추진비와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로 박탈

되었던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

동아리 062-605-1115

*버스파기 50,000원

환상제주 BIG HIT! 제주여행

특전1. 특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육동구이)

특전2.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식물기간 : 2012.03.01 ~ 2012.07.19

※제작일 : 2012.03.01 ~ 2012.07.19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특가 이벤트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7월 30일 19:35 / 제주발 19:35 (광주초)

※스카이웨이 7월 30일 19:35

왕복 2박3일 (5인실 기준) 1인 209,000원~

(관왕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1일 광주 공항 출발 - 제주 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미팅 -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관광 - 한국적인 풍경과 그윽한 향이 가득 오솔길비를 관 - 청기스칸의 검은 것발 더더피크

산방산/용마리해안/하늘가arden - 중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육동구이) - 석부취미마을

(선택관광)서귀포우포늪 - 올레길8코스체험(하ート트선색로/중문색길해변) - 통백꽃동산 카펠리아힐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관광 - 탈리원(토산점점) - <선택관광>설악산(설악산) - 숲속 기어여행 꽃자락 관광

3일 성인미숙여행객 1인 259,000원~

(관왕1급 2인실 1인 30,000원 추가)

※제작일 : 2012.03.01 ~ 2012.07.19

환상제주 Fantastic Jeju
NO.1 제주여행전문랜드

“항공/선박 좌석 다양 확보!!”

이지아나항공 우수대리점 ●

KOREAN AIR 우수대리점 ●

DAEWOO 우수대리점 ●

EASTAR'JET 우수대리점 ●

AIR BUSAN 우수대리점 ●

제주항공 씨월드고속훼리 (목포) ●

한화화재 블루루나리 (완도) ●

장흥여객 오렌지호 (창원) ●

제주/전남 T.062-675-0064